

하박국

- 1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 2 여호와여 !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 3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니이다
- 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 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 8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켜쥐려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 10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 11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 12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궤홀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15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17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륙함이 옳으니이까?

2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 그는 술을 즐기며 궤홀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같이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6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 너를 물 자들이 홀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8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고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9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2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 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와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17 대저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18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3

1 시기오돗에 맞춘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 하나님께서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

5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위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 내심이니이까?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 주의 날으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이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14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흠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 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 는 나의 힘이시라 !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
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
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한국어 성경

The Holy Bible in Korean, 1910 translation

Public Domain

Language: 한국인 (Korean)

Contributor: 레널즈, 이승두, 김정삼

2024-11-05

PDF generated using Haiola and XeLaTeX on 18 Apr 2025 from source files
dated 5 Nov 2024

7611292f-ab99-5de2-9efb-8422f9365905